

전북형 예술지원 체계 구축 · 문화복지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 핵심성과 발표... 지역 관광활성화 위한 다양한 사업현황 · 혁신정책 등 설명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등 2023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1일 이경운 대표이사 등 재단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관내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특성에 따른 예술 지원 체계 구축 노력, 문화예술 복지 강화 및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현황, 재단 조직운영의 혁신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형 예술지원 체계 구축
이에 따르면 먼저, 도내 문화예술단체 ·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굴 및 인력 양성을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생나눔교실 사업의 세대별 지원기관(53개 기관) 발굴 확대, 문화소외지역 우대 선정 등을 통한 유아문화예술교육 운영시설 운영 등의 일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원 확장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 특히,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우수등급 달성(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아·태마스 터스대회 연계 전라북도 대표 공연(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추진 등으로 지역 공연예술시장 활성화 기반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복지 강화
이어, 지역 예술인들의 주도적 지역상생 모델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인 50명 지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말했다. 도내 예술인들의 국가지원 사업 진입을 위해 행정서비스 상담과 행정신청대행, 역량강화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규 발굴한 청년문화예술 주문 배달서비스(75명 지원), 전북 미술시장 활성화(55명 지원),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70명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관광거점 발굴 육성
다음으로, 전북도 치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운영되는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15억원)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했다고 했다. 도내 관광기업 회복지원과 해외시장 관로 개척을 위한 노력으로 베트남 메가 엑스포를 통한 65천달러 계약체결과, 도내 관광스타트업 2억원의 투자유치 협약 성사도 언급했다. 지속적인 해외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동북아와

동남아 관광시장 대상 프로모션(6개 국가)을 추진하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쇼핑트래블러문자를 전주 중앙동에 개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 원도심(고사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발굴 중이다.

△혁신과 ESG경영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재단 직원들의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임금체계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한 직원 평가와 보상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편,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ESG경영 전략계획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이 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도전경성(挑戰鼎成)'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상시 소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내 예술가 다양한 현장 목소리 듣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0월 31일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라운드테이블 '우리의 현장 모두의 예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예술가 70여 명이 모였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여원(도비)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액다건형 지원으로 해마다 지원단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선정율 30%라는 초유의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확보는 물론,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2024년도 정부예산안 삭감에 따라 전북도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단사업 예산에도 큰 변동이 예상돼 지원사업 체계의 효

율적 방향전환이 시급해졌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단체, 예술가, 재단, 전북도가 함께 만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지역 · 장르 · 세대를 고려해 총 8개 그룹으로 구성해 논의했다. 여러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인 만큼 현장에서 나온 의견도 다양했다. 매년 거론되고 있는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이슈는 예외없이 논의됐다. 예술 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창작 안정망 강화와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제도 개선의 의견들이 나온 것도 특이할 만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년제 확대운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본인사제비(이티스트피) 지원, △우수단체 선정, △공모 시기 조정 및 조기공모 시행, △개인 및 단체의 차등 지원, △신청 및 정산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시각분야)전시장 기준 강화, △소외 장르 지원강화, △생활문화예술지원과의 차별성 확보 등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았는데 △예술가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사업, △예술가와 기획자 · 평론가 연결해주는 사업, △청년과 멘토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사업, △프로토타입 사업 등이 다뤄졌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행정예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현장에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사업의 제안도 나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라운드테이블 '우리의 현장 모두의 예술'을 진행했다.

남원 아름다운 소리, 프랑스에 울려 퍼진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어린이국악단, 5~7일 공연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어린이국악단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다종 시립문화원과 연계한 2023년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쿠르브루아, 디종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의 파리(1회), 쿠르브루아(1회), 디종(2회)에서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며, 첫 공연인 5일 오후 3시에는 파리 세인트오틸레 성당(Eglise Sainte-Otilie)에서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를 시작으로 쑤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의 민요메들리에 이어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무궁화, 부채입춤,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등 아름다운 안무와 목소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쿠르브루아 아리랑 실베스트르 초등학교에서 합창단의 아리랑, 무궁화, 고향의 봄, 오 샹젤리제, Sing Sing Sing, 다이너마이트와 남원어린이

국악단의 쑤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등 총 3부로 진행되며 공연 후 학생들과 만나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6일 오후 4시부터는 디종 시나고 교회에서 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울산아가씨와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 등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울산아가씨는 현지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동서양 문화회합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오후 6시에는 디종의 페아트르 드 페이영 홀에서 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무궁화, 부채입춤,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Sing Sing Sing, 다이너마이트, 오 샹젤리제, 울산아가씨와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 쑤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등 총 6부로 진행되고 해외공연 대장정을 마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창의공방 성과전시회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2월 1일까지 한달동안 누리마루 1층 전시실에서 2023년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성과전시회 '시간의 연(緣)을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공예 분야 전문가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하며 전통공예 재창조를 위한 작품 기획, 물성 연구, 제작 등의 창작활동, 외부 전문가 교류 및 연수회(워크숍)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월 선발연수회(워크숍)를 거쳐 참가자를 선발, 최종 선정된 3명의 이수자들(침선장 한미정, 매듭장 김시재, 불화장 이주현)이 7개월 동안 활동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참가자들이 '시간'을 각각 '연결', '연속', '경계', '축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개별 주제화해 인당 3점씩 제작한 총 9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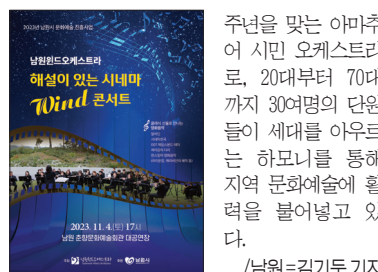
다. 먼저 침선장 한미정 이수자는 '인연(因緣)'이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이어짐을 보여주며, 매듭장 김시재 이수자는 '경계에서 건너가다(Passover)'라는 주제로 누에고치를 참가자 자신에 빚은 작품을 선보인다. 끝으로 불화장 이주현 이수자는 '빛깔을 쌓아 건네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문양과 빛깔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완성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수행을 거듭하는 화사의 시간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사전예약 없이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제작영상을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윈드오케스트라, 4일 클래식 연주회 '시네마 윈드 콘서트'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오는 4일 오후 5시 남원윈드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클래식 연주회 '시네마 윈드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는 최근 대중 클래식 공연계에 열풍이 불고 있는 영화음악을 소재로 '괴이강의 다리', '알라딘', '시네마시티', '007 제임스본드', 영화음악 거장 한스 짐머(Hans Zimmer) 모음곡 등을 해설을 곁들인 공연으로 관객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오케스트라는 2017년 결성한 올해로 창단 6



주년을 맞는 아마추어 시민 오케스트라로, 20대부터 70대까지 30여명의 단원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하모니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